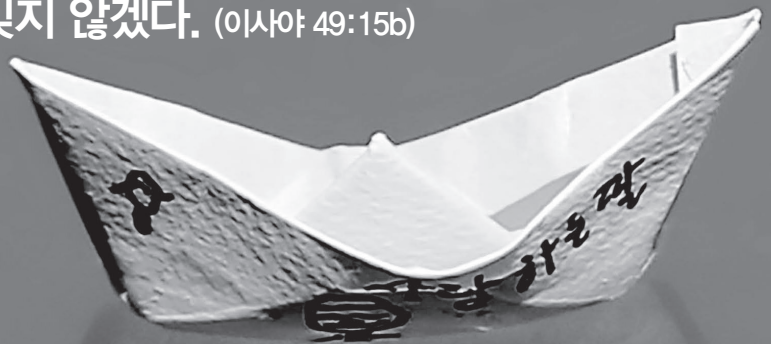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

오직 '진실'로만 부활하실 이들을 기억하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15b)



2016년 3월 27일(일) 오후 3시 30분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후원 | 국민은행 807701-00-009429 류순권(고난연합예배)
문의 | 공동준비위원장 박연미(010-2213-2810) 진광수(010-9593-1960)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2016년 부활절연합예배

WITH TAIZÉ PRAYER



✕ 예배환영사

박연미(장로, 공동준비위원장)

✕ 찬양

47 주께서 부활하셨네
Surrexit Dominus vere(canon)

① 주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Sur-re-xit Do-mi-nus ve - re. Al-le-lu - ia, al-le-lu - ia.

② 참으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Sur-re-xit Chris-tus ho - di - e. Al-le-lu - ia, al-le-lu - ia

5 찬미하여라
Bless the Load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이름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 영광송

26 하늘에는 영광이요
Gloria, gloria(canon)

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 는 평 화 영 - 광 영 - 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Glo - ri-a, glo - ri-a, in ex-cel - sis De - o! Glo - ri-a, glo - ri-a, al-le-lu-ia, al-le-lu-ia!

②

✕ 성경봉독

이사야 49장

김현욱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 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패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x2)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할렐루야 x2)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났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마가복음 16:7-8)



(Kyrie x2)

1

양재섭

주님, 세월호에서 토해낸 고통의 마지막 숨을 들이마신 우리는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그 숨은 하나님이 그 코에 넣으신 생기였습니다. 희생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주시고,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육신을 지켜 저희로 하여금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Kyrie)

주님, 세월호에서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생지옥 속에서 친구의 마지막 절규의 눈을 보고 영혼이 흔들린 이들의 삶은 온통 멍투성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아픔은 꼭 이루어야 할 절실한 삶이기에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 속에서 이들을 구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Kyrie)

주님, 속절없는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의 생기가 머물던 흔적은 시간이 멈춘듯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교실이 사라지려 합니다. 떠난 이들의 흔적을 통해 저희가 잃은 것은 생명인 동시에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이루실 살아 숨쉬던 역사였음을 알게 하소서. (Kyrie)

주님, 마지막 순간을 간직한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속에서 조각 조각 나누어 해체된 채로 인양되려 합니다. 생과 사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세월호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보존되고 인양되게 기도합니다. (Kyrie)

주님,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풍찬 노숙으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어서, 한사람 한사람 정성모아 680만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합의된 특검도 외면하고 청문회 장소마저도 내주지 않는 이들의 강박함을 아시오니,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으로 거짓의 성전 장막이 찢어졌듯 오늘 우리 앞의 거짓의 장막을 찢어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Kyrie)

주님,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애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참사의 상처를 견뎌내야 할 일상조차도 무너뜨리는 악에 맞선 유가족은 멈출 수 없는 여정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Kyrie)

주님,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단 한 생명도 구하지 못한 저희는 충격과 죄책감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온다 던 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오셨듯 다시 오는 금요일에는 진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도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믿으며 주님의 좁은 길을 따르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Kyrie x2)

성찬식

집례 : 홍보연(목사) 박은희(전도사)

성찬위원 : 김근주 김응호 김한별 나지희 남궁희수 박승렬 송건 이관택 이남석

이미경 이종석 안재영 안태현 원지영 이광하 최소영 최금숙 최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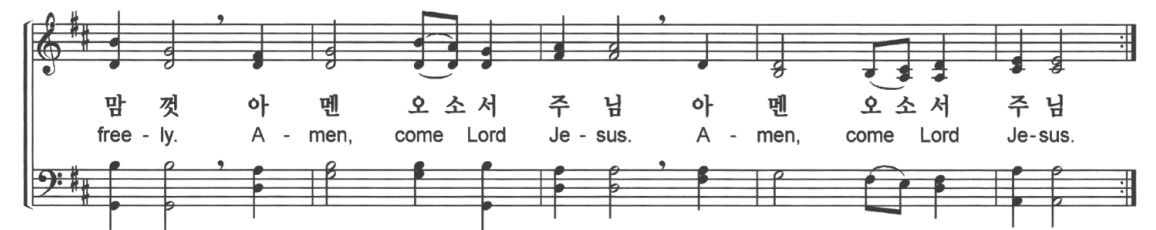
성찬위원 : 강성배 곽미선 김송희 노연경 류광민 심우기 임미심 이선명 이성규 표승범

* 헌금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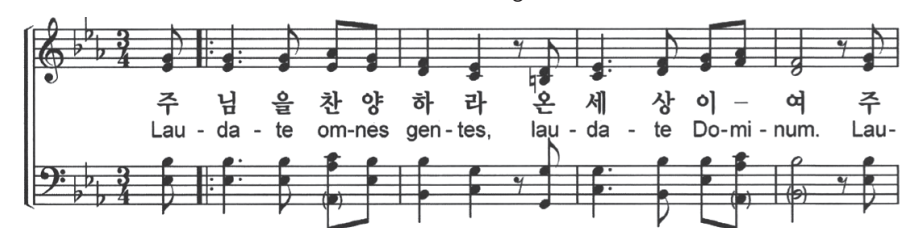
60 목마른 이들

Let all who are thirdty come



23 주님을 찬양하라

Laudate omnes gentes



성사의 제정

집례자 : 모두 주님의 식탁을 향하여 오른 손을 뻗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룩한 식탁을 나눕니다.

✠ 성령 청하는 기도

집례자 :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오른 손을 내립니다.)

✠ 빵에 대한 묵상

빵 안에 있는 우주

집례자 : 밀 이삭이 밭에서 흩어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빵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빵 안에 있는 우주와 생명이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 포도주에 대한 묵상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

집례자 :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잔 안에서 다시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한 몸된 지체임을 묵상합니다.

✠ 주기도문

집례자 :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반목을 물리치고 평화와 용서의 새 날로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에 따른 주기도문을 모두 함께 드립니다.

회 중 : (주기도문)

✠ 성체 쪼갬

집례자 :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빵을 쪼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 분병

집례자 : (빵을 높이 들고 우러러 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잔을 높이 들고 우러러 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 성만찬에 참여

118 이 빵을 먹으라

Jesus Christ bread of life – Eat this bread

14 사랑의 나눔

Ubi caritas

113 주님 너를 고치시며

Il Signore ti ristora

✠ 감사의 기도

집례자 :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이 우리의 삶
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로 하여
금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회 중 : 아멘.

✠ 축복기도

집례자 :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비
추시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미쁘게 보사 평화주시
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지금부터 영원
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회 중 : 아멘.

✕ 폐회 찬송

38 주 예수 부활
Surrexit Christus

오 주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오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O Sur-re-xit Chris-tus, al-le-lu-ia! O Can-ta-te Do-mi-no, al-le-lu-ia!

✕ 안내 및 광고

진광수(목사, 공동준비위원장)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부활절 헌금은 세월호가족대책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5년 성탄절 헌금 사용처: 고공성중진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희망버스에 150만원 전달)
- 십자가 행진은 노란순서지를 높이 들고 떼제 찬양을 부르며 십자가를 따라 광화문 광장 → 세종대왕상 → 이순신동상 → 분향소로 향합니다. (공동준비위원장이 대표로 분향하고 모든 참석자들은 노란순서지를 들고 조용히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 세월호 2주기 기억과 행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기독교인 진실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향 후에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 부활절연합예배 평가회가 4월 6일(수) 오후 7시에 기독교회관 508호에서 있습니다.
- 예배와 찬양에 도움을 주신 떼제 청년 기도팀 <언덕 위 마을>에 감사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253327024797590>)

✕ 십자가 행진

94 주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주님 나 - 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The king-dom of God is jus-tice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주님 열 어 주소서 그 문 우리 - 안에 주
Come, Lord, and o - pen in us the gates of your king-dom. The

3 나와 함께
Bleibet hier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 - 와 함께 기도할 하라
Blei-bet hier und wa-chet mit mir. Wa-chet und be - tet, wa - chet und be - tet.

✕ 분향

✕ 마침노래

143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Señor, que florezca tu justicia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평화가 득한 생명 나라 주
Se - ñor, que flo-rez-ca tu jus - ti - cia, y tu paz em - pa - pe la tier - ra. O

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주
Dios, que flo-rez-ca tu jus - ti - cia, y se lle - ne nues-tra vi - da de ti. Se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